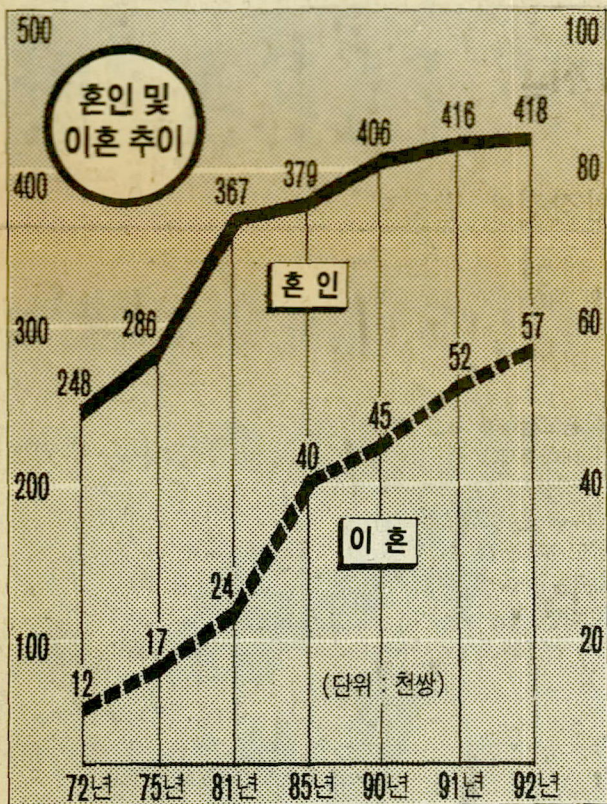




1인 단독가구 전체의 9% 이혼은 20년만에 4.8배로

핵가족화 급속 진행...결혼연령 높아져

통계청 가정현황 발표

가족의 해체와 사회의 개인주의화 경향, 사회의 노령화 등을 반영해 혼자 사는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또 우리나라 부부의 이혼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만, 이혼한 가구의 동거기간은 매우 짧아 비교적 결혼 초기에 이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이 세계 가정의 날(15일)을 앞두고 발표한 우리나라 가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90년 현재 1인단독가구는 1백2만2천가구로 85년의 66만1천가구보다 54.6%가 늘어나 이 기간 동안의 전체 가구증가율(18.6%)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단독가구수는 90년의 전체 가구수 1천1백35만5천가구의 9%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특히 65살 이상의 노인이 혼자 사는 가구는 같은 기간 67.8%가 늘어난 19만7천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만 살고 있는 가구도 90년 현재 22만9천가구로 5년 전에 비해 56.8%가 늘어났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차식들과 떨어져 홀로 또는 부부만 외로이 살고 있는 숫자가 약 65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1인단독가구 구성인의 성격을 보면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이 46.7%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를 사별한 사람은 34.6%, 이혼한 사람은 5.4%였다. 또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직장·학업 등으로 떨어져 가구를 구성한 사람의 비율도 13.3%나 됐다. 계속 혼자 살 가능성이 높은 40살 이상 단독가구비율은 47.4%였다.

3대가 함께 사는 가구비중도 18.9%에서 12.2%로 낮아져 핵가족화 경향이 급격히 진행된 나머지 최근에는 가족해체의 양상도 다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은 79년만 해도 장남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30.6%였으나 91년에는 18.3%로 낮아졌고, 대신 아들 딸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27.1%에서 46.2%로 높아졌다.

한편 지난 92년중 이혼 발생건수는 5만7천건으로 72년의 1만2천건에 비해 무려 4.8배로 늘어났다.

이혼하기까지의 동거기간은 5년 미만이 36.3%로 가장 많고 10년 미만이 27.2%, 20년 미만이 9.4%였으며, 결혼한 지 2년이 안돼 헤어지거나 20년 이상 같이 살다가 어느날 갑자기 결별하는 경우도 각각 15%, 6.3%나 됐다.

이를 산술평균한 평균동거기간은 8.4년으로 미국(9.1년), 일본(10.8년), 영국(11.6년) 등에 비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결혼 10년 이내의 이혼이 점차 줄어들고 10~15년 사이의 이혼이 점차 늘고 있어 비교적 이들 국가 유형에 접근하고 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인구 1천명당 이혼자 비율은 1.3명으로 미국의 4.7, 영국의 2.9 등에 비해서는 매우 낮지만 72년의 0.4에 비해서는 크게 높아졌다.

결혼풍속도에 있어서는 평균 혼인연령이 지난 91년의 경우 남자 28.1살, 여자 24.9살로 과거와 비교할 때 계속 늦추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